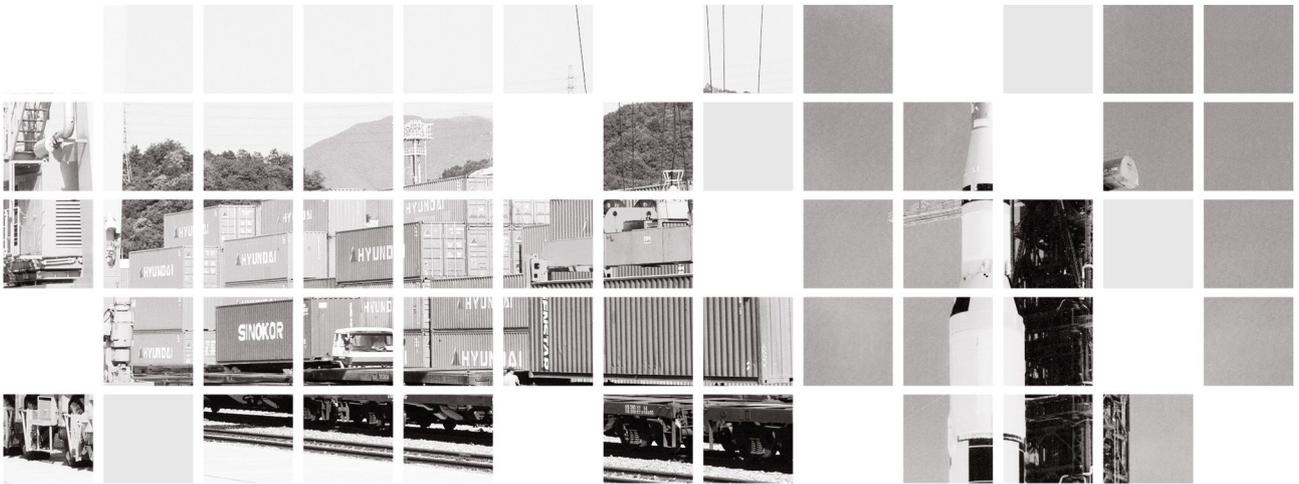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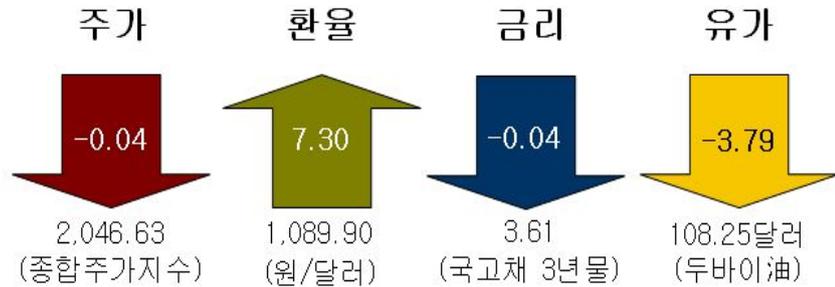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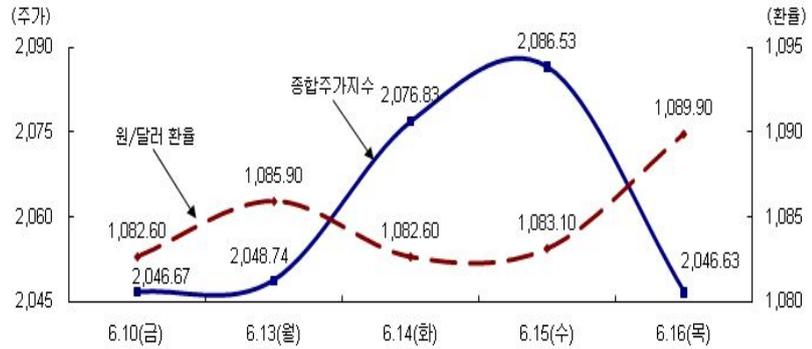
HRI Weekly Economic Review



[일본 경기회복 늦어진다
- 지진 복구 100일 점검]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6.10~6.16)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일본 경기회복 늦어진다 - 지진 복구 100일 점검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20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 성 : 김 동 열 수석 연구위원 (2072-6213, dykim@hri.co.kr)

Executive Summary

□ 일본 경기회복 늦어진다 : 지진 복구 100일 점검

■ 대지진 이후 일본경제 현황

3.11 대지진으로 약25조엔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일본경제는 방사능 누출과 전력 부족이 겹쳐 올해 1/4분기에 예상보다 훨씬 나쁜 -3.5%(전기비 연율)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개인소비와 설비투자 모두 前期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지난 4월 단칸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 등 경기선행지표들도 매우 저조하여, 2/4분기 역시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다.

■ 일본경제 회복의 장애물

어려움에 빠진 일본경제의 조기 회복 여부는 電力 부족, 공급망 단절, 불안한 식품 등 3가지 장애물을 얼마나 빨리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 먼저, 전력 부족을 보면, 東京을 포함한 東일본지역의 전력 공급능력이 5천만 kW 하락함에 따라 현재 천 백만 kW가 부족하며, 7-9월 성수기에는 전력부족률이 약8~1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다음으로 東北지역의 생산차질은 공급망으로 연결된 홋카이도, 關東 등 다른 지역의 자동차와 IT분야에도 큰 피해를 초래했다. 완성차는 지난 3월 52만대의 생산차질을 겪었고, 4-6월에도 電力과 부품 부족으로 약100만대의 생산차질이 발생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쓰나미 피해와 방사능 누출, 풍문(風評)이 겹쳐 東北지역이 약 50%를 담당하는 야채, 수산물 등 식품의 공급은 물론 소비에도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 장단기 경제 전망

原電의 복구와 전력부족 해소가 지연됨에 따라 일본경제는 2/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며, 공급망 연결이 마무리되는 3/4분기 이후에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따라서 2011년 성장률도 0%내외(제로성장)로 하향 조정되었다.

지진피해 복구와 더불어 일본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1)무역수지 적자, (2)디플레 탈피, (3)西高東低형 공장배치 등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진에 따른 공급 차질로 지난 4월 4,649억엔의 무역적자가 발생했고, 소비자물가도 26개월만에 전년동기비 0.6% 상승했으며, 關西지방과 한국 등 서쪽으로 공장을 재배치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美日의 장기금리 격차 지속, 피해복구 자금의 방출, 무역수지 적자 등에 따라 (4)완만한 円貨약세가 예상된다.

■ 시사점 및 과제

일본의 사례 속에서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 핵심부품의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며,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제회의 관련 MICE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에너지효율성 높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하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일본 경기회복 늦어진다: 지진 복구 100일 점검 >

대지진 이후 일본경제 현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1 대지진의 여파로 1/4분기 GDP, 소비, 투자 모두 마이너스 · 1/4분기 -3.5%성장(전기비 연율), 작년4/4분기 -2.9%에 이어 연속 (-) - 전력 부족과 복구 지연에 따라 모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음 · 특히 소비자신뢰지수가 4월 현재 33.6으로 급락

일본경제 회복의 장애물		
3가지 장애물	電力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 전력부족률은 東京전력·東北전력 관할 각각 8%, 10%로 전망 · 전력투입비율 높은 석탄/석유/가스업종, 종이관련 업종이 큰 피해
	공급망 단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반도체, 화학 관련 부품·소재 공급망의 연결이 중요 · 하반기에는 대부분 정상 가동될 전망이지만, 전력부족이 장애물
	불안한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식품의 상당부분을 책임지는 東北지역이 지진과 쓰나미, 방사능 누출로 큰 피해를 입어 식품의 공급과 소비에 큰 차질을 초래

장단기 경제 전망		
경기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제로성장이 예상되며, 2012년 이후 정상 궤도로 복귀할 전망 · 일본경제의 본격 회복은 3/4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 	
새로운 현상	무역 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진에 따른 공급 차질로 무역수지 적자가 단기간 지속될 전망 · 2011년 4월 4,676억엔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음
	디플레이 탈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 수요와 공급 부족으로 단기간 물가 상승과 디플레이 탈피 예상 · 지난 4월 소비자물가 0.6% 상승. 26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됨
	西高東低 공장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北해안의 생산 비중을 줄여 오사카 등 關西지방으로 옮기고, 나아가 한국과 아시아지역으로 옮기는 공장 재배치가 이뤄지고 있음 · 천재지변에 대비한 리스크 분산형 공장 재배치가 진행되고 있음
	円貨 약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직 엔화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内外금리격차 확대와 복구자금 방출로 엔화는 완만한 약세를 유지할 전망 · 한신 대지진 때에도 3개월 강세 후 약세로 전환, 1년 이상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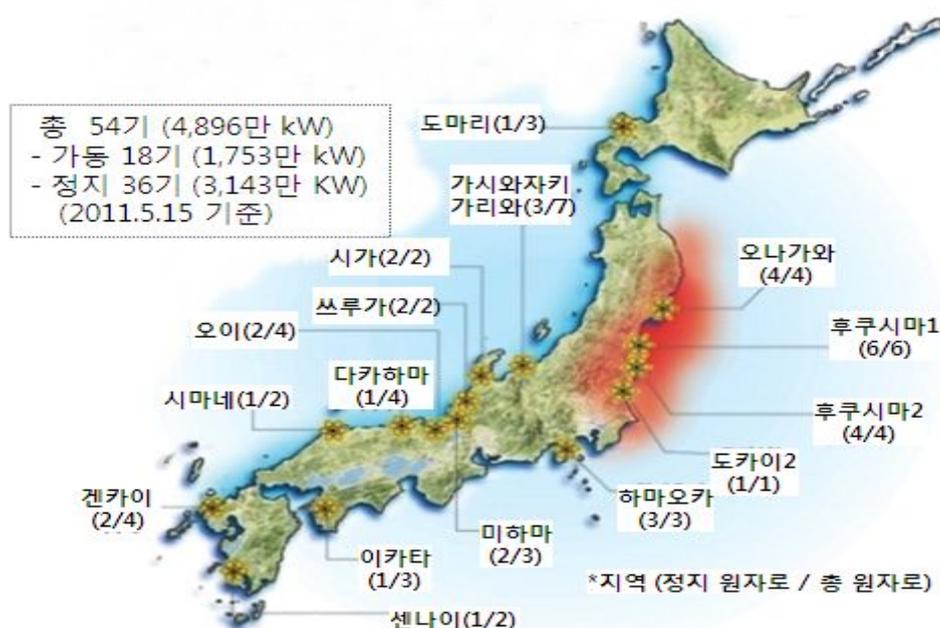
시사점 및 과제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경제는 단기적으로 전력부족 해소와 공급망 연결이 시급하며 장기적으로는 리스크 분산형 경제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우리 경제는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제고의 계기로 삼아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에 전력을 기울이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절감형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재난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 · 일본에서의 핵심부품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국제회의의 관련 MICE산업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

1. 대지진 이후 일본경제 현황

○ (현황) 지난 3.11 대지진으로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일본경제는 올해 1/4분기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 늦어지는 原電 복구: 대지진과 쓰나미의 여파로 총36기의 원자로가 가동중지 상태에 있으며, 방사능 누출과 전력 부족으로 일본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原電의 복구 지연은 전력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은 물론, 국민들의 소비심리¹⁾를 위축시키고 있어 일본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 일본의 총54기 원자로 가운데 2011년5월15일 현재 36기(3,143만 kW)가 가동중지 상태에 있으며, 나머지 18기(1,753만 kW)만 가동 중에 있어서 연간 합계출력 기준으로 3,143만 kW의 전력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음

< 일본 원자력 발전소 분포 및 가동중지 현황 >



자료: 日本原子力産業協會

1) 일본 지진역사상 최대 규모인 진도 9.0의 동일본대지진이 초래한 3만여 명의 인명피해, 25조엔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는 지진 피해와 무관한 다른 소비자들의 자숙 분위기와 축제, 관광의 위축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전력의 부족에 따른 '15% 節電' 운동도 소비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분기 연속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 일본의 올해 1/4분기 성장률은 당초 플러스 전환이 예상되었으나, 3.11 대지진에 따라 전기비 연율 -3.5%(전기비 -0.9%)²⁾로서 작년 4/4분기 -2.9%(전기비 -0.7%)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 1/4분기 성장률은 물론 개인소비, 설비투자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오직 수출만이 일본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
- 대지진에 따른 산업시설의 피해와 도로, 교량 등 인프라의 파괴, 전력 부족에 따른 조업 단축 등이 생산과 소비, 투자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침

< 분기별 경제 성장률과 부분별 기여도 추이 >



자료 : 일본 내각부
 주 : 분기별 성장률과 기여도는 전기대비 年率 기준. 기여도에서 민간재고투자와 민간주택투자 제외

-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2010년 4.0%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를 반영하여 단칸지수³⁾, 소비자신뢰지수, 경기선행지수 등 선행지표들이 대부분 2010년 이후 호전되고 있었으나, 3.11 대지진으로 다시 악화됨
- 특히,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4월 현재 33.6으로 급락했음

< 주요 선행지표 추이 >

	2009년		2010년				2011년	
	3/4	4/4	1/4	2/4	3/4	4/4	1/4	4월
단칸지수(p)	-44	-35	-33	-22	-10	-13	-15	-9
소비자 신뢰 지수(p)	40.7	37.9	41.0	43.6	41.4	40.2	38.3	33.6
경기선행지수(p)	93.3	96.5	99.5	100.7	100.9	101.9	104.2	104.9

자료 : 日本 내각부, Reuters
 주 : 소비자신뢰지수, 경기 선행지수는 3월, 6월, 9월, 12월 자료이며, 4월 단칸지수는 2/4분기 전망치임

2) 지난 6월10일 일본 내각부의 2차 속보치를 참고
 3) 단칸지수는 일본 대기업들의 단기채감경기를 나타내며 '0'을 기준으로 '+ 값'이면 향후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함을 의미

2. 일본경제 회복의 장애물

○ (3가지 장애물) 일본경제의 조기회복과 낙관적 전망을 가로막는 전력부족, 공급망 단절,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의 장애물을 얼마나 빨리 극복하느냐에 따라 경제회복의 속도가 결정될 전망

- ①電力 부족: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폭발로 東京지역의 계획 정전이 계속되고 있었으나, 原電의 복구가 지연됨에 따라 전력부족의 장기화⁴⁾가 우려됨
- 도쿄를 포함하는 東일본지역의 電力 공급능력이 대지진 以前의 106백만 kW에서 대지진 以後 56백만 kW로 크게 하락함에 따라, 약 25백만 kW가 부족

< 東일본과 西일본 지역의 대지진 前後 電力수급 비교 >

(단위: 백만 kW)

	東일본(3개 電力, 50Hz)		西일본(6개 電力, 60Hz)		일본 전체(9개 電力)	
	공급능력	최대수요	공급능력	최대수요	공급능력	최대수요
대지진 前	106	81	132	90	238	171
대지진 後	56	81	132	90	187	171

자료: Mizuho Corporate Bank, '東日本大地震', 보고서, 2011.4.25

주: 東일본과 西일본의 送電 주파수가 각각 50Hz, 60Hz로 달라 상호간 電力용동이 안 됨

- 지난 4월8일로 제한송전은 중단되었으나, 여름 성수기에 다시 재개될 전망이며, 7·8·9월 성수기의 電力부족률은 東京전력 관내의 경우 약8%, 東北전력 관내의 경우 약 10%까지 올라갈 것이 우려됨

< 東京·東北電力 관내 전력수급 및 부족률 추이 전망 >

(단위: 만 kW, %)

		3월	4월	7월	8월	9월
東京 電力	수요	3,729	4,100	5,500	5,500	5,500
	공급	3,650	3,881	5,200	5,135	5,070
	부족률	-2.1	-5.3	-5.5	-6.6	-7.8
東北 電力	수요	1,050	1,050	1,340	1,340	1,340
	공급	970	970	1,210	1,210	1,210
	부족률	-7.6	-7.6	-9.7	-9.7	-9.7

자료: MUFJ銀行, '經濟レビュー', 2011년4월20일자

주: 부족률은 수요 대비 공급 부족분의 비중

4) 이와 같은 전력부족의 장기화는 電力투입비율이 높은 산업(석탄·원유·천연가스 및 수도·폐기물처리업, 화학기초제품, 펄프·종이·종이가공품제조업 등)에 집중적인 피해를 초래함

- 2011년 전력부족 규모는 전체 소비량의 약 3.6% 규모에 달할 전망으로, 이로 인해 실질 GDP는 0.7%p 하락, 취업자 수는 11.6만 명 감소, 임금은 0.4% 악화될 것으로 추정됨⁵⁾

< 전력공급 부족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구분	실질 GDP	취업자 수	1인당 연평균임금
전력공급 3.6% 감소 시	-31,228억 엔 (-0.7%p)	-11.6만 명 (-0.2%)	-1.4만 엔 (-0.4%)

자료 : 第一生命經濟研究所, 「電力不足が雇用·所得に及ぼす影響」, 2011年 5月 9日

- ②공급망 단절 : 피해가 집중된 일본 東北지역과 關東지역의 부품·소재 공급망(supply chain)의 연결 정도와 속도에 따라 자동차, 반도체, 화학 등 기간산업의 조업 정상화가 결정될 것임
- 東北 주변 13개 道縣에 생산의 집중도가 높았던 석유·석탄제품제조(2007년 기준 48.2%), 농림수산업(43.9%), 식료품제조(36.8%) 등이 많은 피해를 입음⁶⁾

<東北지역의 생산비중과 출하액>

	생산비중 (%)	출하액 (조 円)
제조업 계	7.1	18.9
식료품	11.0	2.7
펄프종이	11.0	0.8
화학	5.3	1.3
철강	3.9	0.6
비철금속	10.7	0.7
금속제품	8.6	1.1
범용기계	4.8	0.5
생산용기계	6.8	0.8
업무용기계	9.9	0.7
전자부품	14.7	2.2
전기기계	6.0	0.8
정보통신기계	15.2	1.7
수송용기계	2.5	1.2
기타	7.0	0.3

자료: 경제산업성, 『공업통계표』, 2009

<東京電力관내의 생산비중과 출하액>

	생산비중 (%)	출하액 (조 円)
제조업 계	33.2	88.1
식료품	33.8	8.3
펄프종이	32.7	2.3
화학	39.8	9.6
철강	25.8	4.1
비철금속	36.4	2.5
금속제품	32.5	4.0
범용기계	31.3	3.1
생산용기계	33.6	4.0
업무용기계	44.1	3.1
전자부품	19.0	2.8
전기기계	39.9	5.5
정보통신기계	38.4	4.4
수송용기계	28.8	13.6
기타	40.9	1.6

자료: 경제산업성, 『공업통계표』, 2009

5) 산업별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세부 자료는 ‘별첨 5’참고(대구경북연구원(2011) 재인용)
 6) 1995년의 한신대지진에 비해 3.11 대지진의 경우 피해범위가 2배 이상 더 넓다는 특성으로 인해 피해규모도 크고, 복구에도 시간이 더 걸리고 있음 (일본 MUFJ銀行의 2011년4월20일자 ‘經濟レビュー’를 참고)

- 東北지역의 생산차질은 東北지역은 물론 공급망으로 연결된 홋카이도, 칸토(關東)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산업에도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일본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와 IT 분야가 큰 피해를 입고 있음 (별첨 표 참조)
- 6월 현재 자동차공장들은 대부분 재가동되었으나 일부 부품 및 전력의 부족으로 간헐적 조업중단은 계속될 전망이다. 3월 한 달의 생산차질은 52만대에 달했고 2사분기의 생산차질은 100만대에 이를 전망
-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웨이퍼의 주력기업 신에츠化學, SUMCO 등의 생산차질이 있었으나 6월 현재 대부분 정상화되었으며, 에틸렌과 같은 화학분야 기초원료 생산 공장들도 5월말경 대부분 정상화됨

<완성차업체의 생산차질 현황>

(단위: 만 대)

	2011년 3월	4월~6월
일본	52	100
북미	-	47.5
유럽	-	47.5
기타	8	75

자료: Global Insight (2011.4)

<車메이커의 생산·판매 차질 현황>

(단위: 천 대, %)

	일본 생산	일본 판매	수출
도요타	129(-62.7)	111(-45.9)	108(-33.4)
닛산	48(-52.4)	61(-35.7)	489(-52.4)
혼다	35(-62.9)	58(-28.2)	21(-26.2)

자료: 日本自動車工業協會 (2011.4)

주: 2011년 3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 ③불안한 식품 : 방사능 누출 및 풍문(風評⁷⁾)과 맞물려 식품의 안정적 공급⁸⁾과 먹거리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부진으로 연결되어 일본경제의 회복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진양지였던 후쿠시마현을 중심으로 홋카이도,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치바 등 7개 道縣은 일본 어업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 어업종사자의 1/3이 거주하고 있어 수산물 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함

7) 근거가 불분명한 소문(風評)의 확산과 이에 따른 소비위축이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방사능 누출에 따른 유전자 변형 동식물의 출현과 같은 소문은 동북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식품의 판매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음

8)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은 漁船이 18,872척, 漁港이 315개소, 파손된 市場은 66개소에 달해 수산식품의 공급과 유통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東일본 산리쿠(三陸)⁹⁾ 해안의 수산물 출하 비중>

(%)

양식 미역	상어	꽂치	고등어	양식 굴	연어	가다랑어
79	61	41	38	29	19	13

자료: 日經ビジネス, 2011年4月18日

-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물론 방사능 누출 관련 풍문(風評)¹⁰⁾으로 인한 간접적 피해로 東일본 11개 현(縣)에서 생산된 야채 및 수산물의 출하와 유통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음

<東일본 11개 현(縣)의 야채 출하 비중>

(%)

양파	우엉	겨울파	파	겨울배추	연근	시금치	팥콩	썩갓	정경채	배추	양배추
78	66	58	57	52	51	50	50	48	42	42	41

자료: 日本 농림수산성 '농림수산통계'

주: 11현(縣)은 아오모리 아키타 이와테 미야기 야마가타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 치바 사이타마

- 아직도 식품공장의 상당수가 복구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한 식품 공급과 수요 위축이 문제가 되고 있음

< 미복구된 식품공장 현황>

지역	업체명	피해 품목	지역	업체명	피해 품목
이와테	야쿠르트본사	야쿠르트 등	후쿠시마	아사히맥주	맥주 등
	리켄비타민	미역		야쿠르트본사	야쿠르트 등
	하치칸	냉동식품		이토엔	가공채 등
미야기	기린, 삿포로	맥주 등		마루이치가공	수산가공품
	일본코카콜라	음료		일본델몬트	케첩
	메이지	우유, 야쿠르트		일본담배산업	담배, 담배 잎
	토호쿠모리나가유업	우유, 홍차음료	토치기	카고메	음료 전반
	마루하니치로식품	냉동·냉장식품		일본담배산업	담배
	다이요 A&F	조미료 등	이바라키	아사히음료	음료
	일본수산	냉동식품, 어묵		오하요유업	유제품 등
리켄비타민	미역	일본담배산업		담배 잎	
마루이치가공	수산가공품 등	아오모리	타이요냉장	생선가공식품	

자료: 日經ビジネス, 2011年4月18日를 참고로 재작성

9) 미야기(宮城), 이와테(岩手), 아오모리(青森) 등 3개 현에 걸친 해안 지역을 가리킴. 일본 최대의 어업 기지로 기능해 왔으나, 3.11 대지진이 미야기(宮城)현 앞바다를 진앙지로 발생함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됨.

10) 해외에서도 일본산 농수산물식품은 물론 공산품에 대한 수입 규제 및 안전성 검사 강화의 움직임이 있음

3. 장단기 경제 전망

3-1. 단기 전망: 2011년 '제로'성장 이후 정상 궤도에 진입할 전망

- (2011년 '제로'성장) 산업피해의 복구, 공급망의 연결 등은 순조롭지만 原電의 정상가동이 지연되고 전력부족이 계속됨에 따라, 일본경제의 회복은 3/4분기 이후에나 이루어질 전망이며 각종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음
- 일본의 2011년 연간 실질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1.5%내외에서 0%내외¹¹⁾의 제로성장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2012년에야 성장궤도로 복귀할 전망¹²⁾
 - 올해 2/4분기 지표에는 3.11 대지진의 피해가 가장 크게 반영될 것이므로,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될 것이며, 3/4분기 이후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
 - OECD는 일본경제의 2011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대폭 하향 조정¹³⁾했으며, 2012년에는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올해 일본경제는 불안한 내수보다는 안정적인 수출 등 해외수요에 의존할 전망. 특히, 개인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에 해당¹⁴⁾하는 關東지역과 東北지역의 소비심리 위축이 '선택적 소비'¹⁵⁾의 감소로 연결되고 있음

< 일본 주요 실물경제 지표 추이 >

(전기대비 연율, %)

	2008	2009	2010	2011					2012
				1Q	2Q	3Q	4Q	연간	
경제 성장률	-1.2	-6.3	4.0	-3.5	-3.0	2.8	4.9	0.0	2.7

자료 : 일본 내각부, 1/4분기 GDP 속보치, 2011.6.10; 2/4분기 이후는 일본 TDB, 거시경제전망, 2011.5.23

- 11) 최근 일본의 요사노 가오루 경제재정상도 2011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0.6~0.7%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민간경제연구소들도 올해 성장률을 0%에서 0.8%정도로 하향 조정된 전망치를 내놓고 있음
- 12) 2011년과 2012년 성장률 전망치는 TDB(Teikoku Data Bank)의 2011년5월23일자 "TDB マクロ經濟見通シ"를 참고
- 13) 그러나, 41개 민간연구기관의 전망치를 평균하여 日本經濟企劃協會가 최근(6월10일경)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분기별 성장률은 2/4분기 -3.0%, 3/4분기 4.0%, 4/4분기 5.2%(전기비, 연율) 등으로 'V자 회복'을 주장
- 14) 2007년 기준 일본의 지역별 개인소비 금액과 비중을 보면, 關東 99.7조 円(38.1%), 東北 21.5조 円(8.2%) (자료: 내각부, 「縣民經濟計算」, 2007)
- 15) 2010년 기준 일본의 1세대당 평균 소비지출 내역을 보면, 기초적 지출이 170.4만 円(56.3%), 선택적 지출이 132.4만 円(43.7%)이며, 선택적 지출이란 불요불급한 여행경비, 숙박비, 관람료, 화장품 등의 지출을 포함 (자료: 총무성, 「가계조사」,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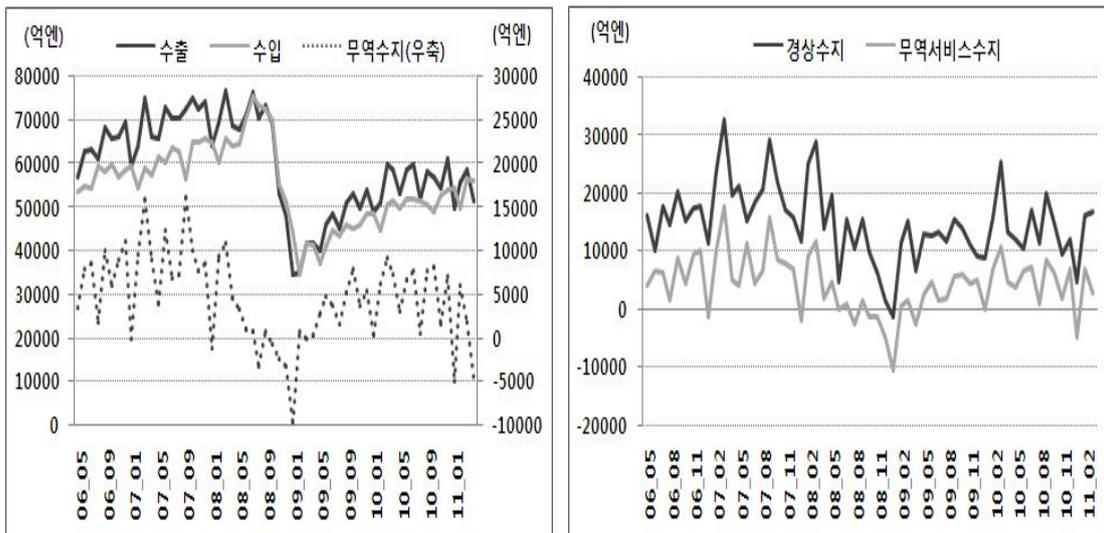
3-2. 일본경제의 새로운 구조변화 전망

- 지진피해 복구와 더불어 일본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함께 추진되고 있으며, (1)무역수지 적자, (2)디플레이 탈피, (3)西高東低형 공장배치 등 새로운 변화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4)완만한 엔화 약세가 예상됨

(1) 3개월 정도의 단기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전망

- 2011년 4월 일본의 무역수지는 4,649억 엔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크게 축소되었던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가 이번 3.11 대지진으로 더욱 축소되고, 3개월 정도 단기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무역수지는 2008년 금융위기로 적자를 기록한 후 2009년, 2010년 흑자로 전환됐으나, 3.11 대지진의 충격으로 지난 4월 4,649억 엔의 적자를 기록함

< 일본의 수출·입 및 국제수지 추이 >



자료: 일본 내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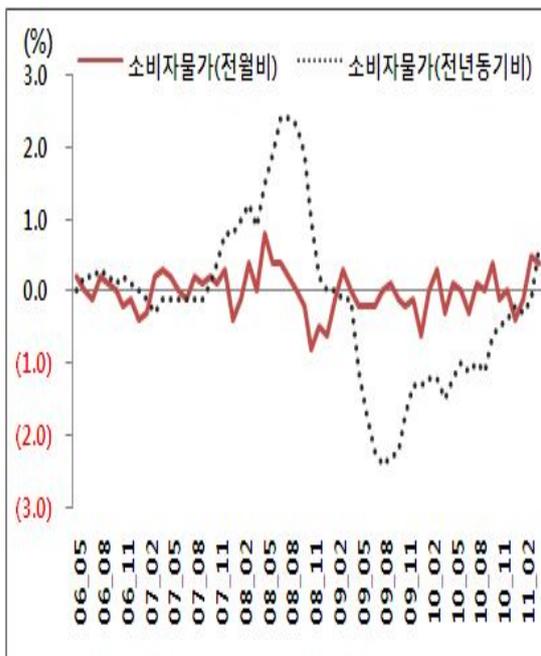
자료: 일본 내각부

- 2008년 당시는 세계적으로 급감한 수요의 부진에 따라 일시적으로 경험한 무역 적자였으며, 2011년 현재의 무역적자는 일본 국내의 공급망(supply chain) 단절에 따른 무역적자로서 향후 장기간 지속될지 여부가 관심임
- 3.11대지진의 충격으로 2011년4월 수출은 5조1,566억 엔으로 전월대비 7,046억엔(12%)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4,649억엔의 적자를 기록함

(2) 일시적 물가 상승과 디플레 탈피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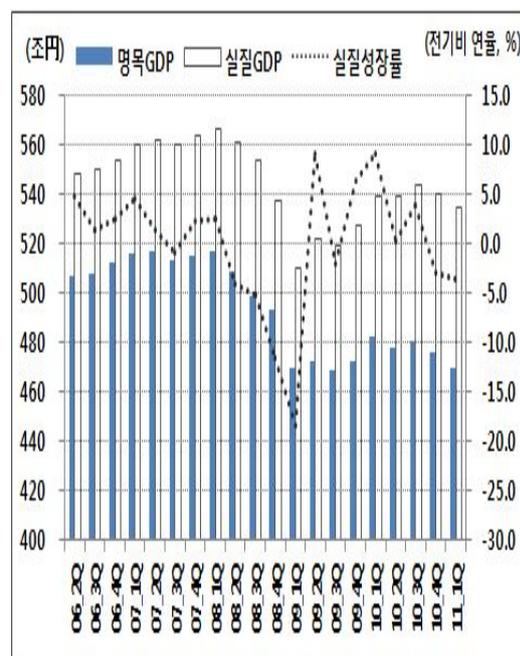
- 2011년 4월 소비자물가는 3.11 대지진의 영향으로 26개월만에 전년동기대비 0.6% 상승했으며, 이처럼 복구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장기간 지속된 디플레(물가하락)의 시대가 끝날지에 관심이 집중됨
- 2009년부터 계속된 일본 소비자물가의 하락(전년동기비) 추이가 2011년 3.11 대지진으로 종료되고 지난 4월 상승했으나,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임
- 전년동기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9년2월 0.0%를 기록한 이래 2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음

< 일본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



자료: 일본 내각부

< 일본 GDP 및 성장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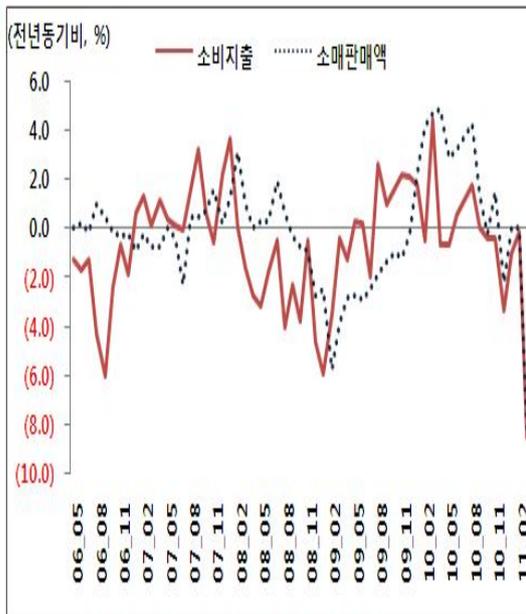


자료: 일본 내각부

- '90년대 초반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96년 이후 '人口오너스'¹⁶⁾(생산가능인구 감소) 시기가 개막되고 나서 '내수 부진'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바, 이번 대지진에 따른 물가상승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큼
- 新車 판매대수는 '01년, '02년, '05년~현재 감소. '06년 好景氣에도 감소
- 소매판매는 1997년 이후 12년째 감소세에 있음
- 백화점매출도 계속해서 전년대비 마이너스 상태에 있음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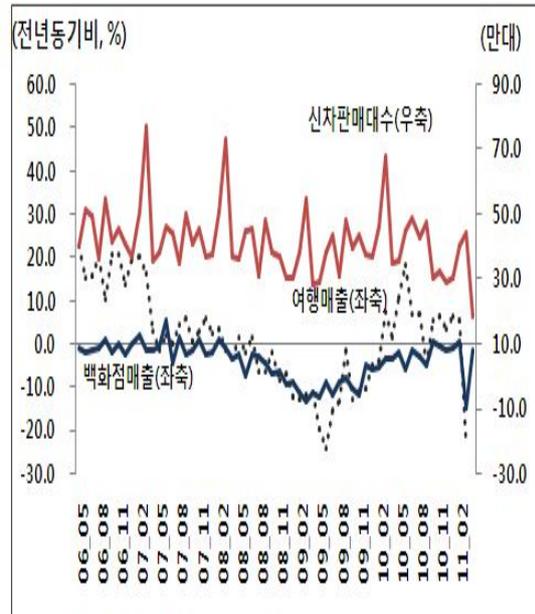
16) 오너스(onus)란 '책임'을 의미하며, 인구오너스란 새롭게 구직시장에 진입하는 인구보다 정년 퇴직자가 더 많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고령자부양의 책임이 무거워지는 시기를 의미.

<소비지출 및 소매판매 추이>



자료: 일본 재무성

<신차판매, 여행, 백화점매출 추이>



자료: 일본 재무성

- 3.11 대지진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최대 25조円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복구수요로 인해 건설과 주택 분야의 호경기¹⁸⁾가 예상되지만, 수요가 다년간에 걸쳐 분산될 것이며 그 효과도 제한적일 것임
- 예를 들어 피해규모를 25조円으로 추산할 경우, 2011년 7.75조엔, 2012년 9.5조엔, 2013년 7.75조엔과 같이 3년에 걸친 분산투자가 이뤄질 것임¹⁹⁾
- 1995년 한신 대지진의 경우에도, 피해규모로 추정된 약10조 엔과 비슷한 규모의 투자가 3년에 걸쳐 나뉘어서 이뤄진 바 있음

(3) 외부충격에 대비한 西高東低형 공장 재배치를 추진

- 東北지역 해안에 집중되어 있는 자동차와 IT 관련 생산시설의 비중을 줄이고, 오사카 등 關西지역과 나아가 한국 등 동남아지역으로의 공장 재배치가 추진되고 있음
- 최근 국내에서 개최된 ‘자동차부품산업전시회’에 일본 대지진 사태로 생산차

17) 기타, 국내화물 총수송량, 1인당 수도사용량, 맥주소비 등도 2000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藻谷浩介, 『デフレの正體 - 經濟は「人口の波」で動く』, 角川出版社, 2010)

18) 마스크, 컵라면, 빵, 도시락 등 피해복구와 관련된 일부 품목의 특수도 있지만, 소비심리 위축으로 백화점과 고급브랜드의 소비는 위축되고 있음

19) 藤田 勉(2011), p.41 참고

- 질을 겪고 있는 북미와 유럽 완성차업체는 물론 일본 완성차업체와 대형 부품업체들도 많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짐
- 일본에서의 부품조달 실패로 생산에 차질을 겪은 유럽지역 완성차업체 및 1차 벤더가 일본을 대체할 거래선으로서 한국을 주목하는 움직임 보임
- 關東지역의 거점공장을 西日本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은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중장기적 '리스크 분산'의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음
- 中西部의 기후縣은 도쿄돔의 22개 분량(103만㎡)에 달하는 유허 산업용지 분양을 위해 지난 4월1일 東北지역의 지진피해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 반도체용 불소수지부품을 만드는 '니치아스'는 생산의 일부를 西일본으로 이전할 계획²⁰⁾
- 이와 같은 西일본쪽으로의 산업재배치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西일본의 전력사정을 고려한 측면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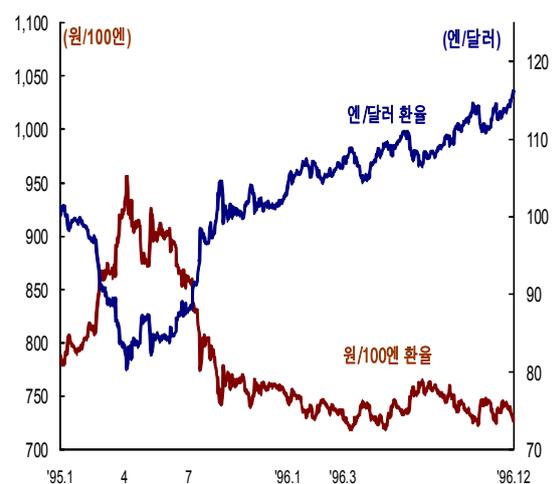
(4) 완만한 円貨 약세가 진행될 전망

- 短期的으로는 피해복구를 위한 엔화 자금의 일본 유입 등으로 円高 압력이 있겠지만, 中長期的으로는 막대한 재정지출, 内外금리격차 확대 등의 영향으로 엔화가치는 하락세로 전환, 완만한 円貨 약세가 진행될 전망

< 3.11 대지진 前後 엔화 추이 >



< '95년 한신 대지진 以後 엔화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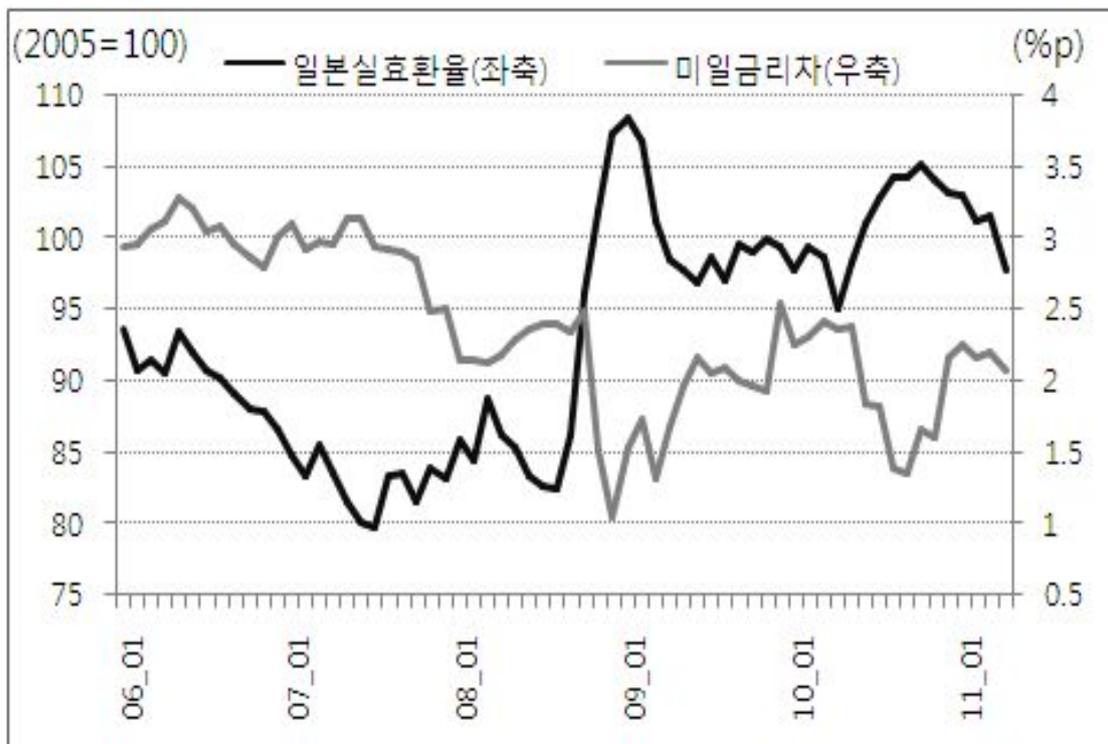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0) 日本經濟新聞, 2011년5월5일자. 3면

- 엔화 가치는 일본내 엔화 자금 유입 증대 등으로 인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재정지출과 美日 국채금리의 격차 확대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이며 이로 인해 円貨 약세를 유지할 전망
 - 엔/달러 환율은 3월11일 82.91엔에서 3월17일 78.67엔까지 하락했으며,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5월24일 현재 82.09엔으로서 아직 엔화강세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1995년 한신 대지진의 경우를 보면, 엔화 가치는 3개월가량 강세 후 약세로 전환되어 1년 이상 약세를 유지한 바 있음
- 실질실효환율과 内外금리차이를 보면, 일본의 금융자유화로 해외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일본과 해외의 금리차이에 円貨가치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일본과 미국의 10년 만기 장기 국채금리의 차이가 벌어졌을 때 실효환율이 하락하고, 그 차이가 좁혀졌을 때 실효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11년 들어 미국 장기국채와의 금리 격차가 1%대에서 2%대로 벌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는 당분간 엔화 가치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円貨의 실질실효환율과 美日 금리격차 추이>



자료: BIS,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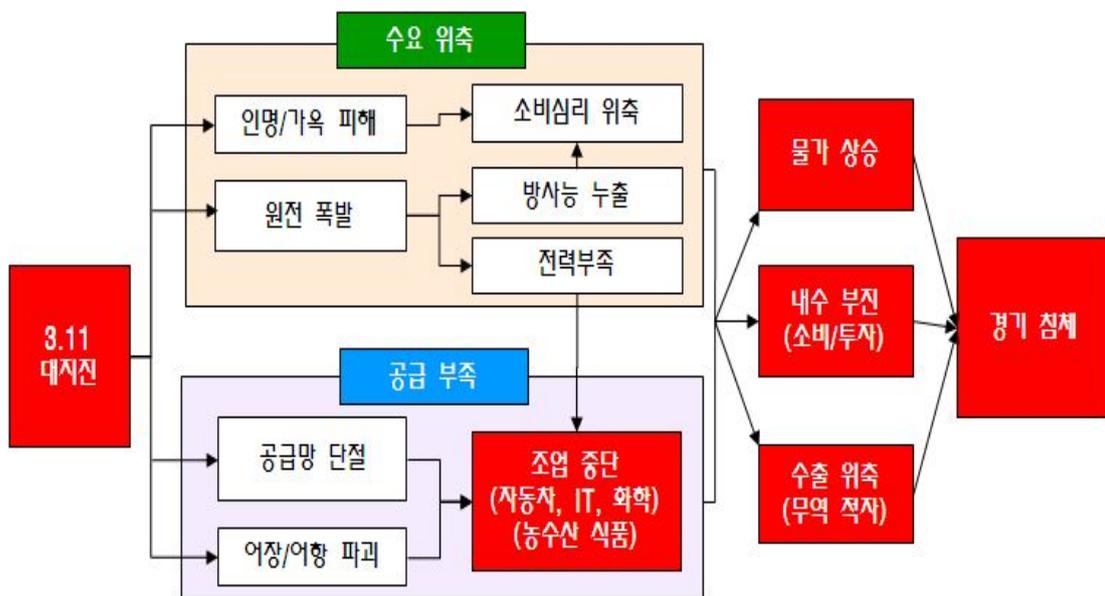
주: 1) 엔화의 실질실효환율은 2005년을 100으로 하는 BIS의 'Broad' 기준 지수

2) 美日금리 차이는 양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임

4. 시사점 및 과제

- 일본경제의 순항 여부는 단기적으로 올 여름 전력부족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단절된 공급망을 연결하는 것, 장기적으로 리스크 분산형 생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재구축하는 것에 달려 있음
- 위기에 취약한 도쿄(東京) 일극 중심체제를 개선하여 지역균형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고를 최소화하는 '린 생산방식'이나 'JIT(Just In Time)시스템'을 보완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추진되고 있음
 - 東北 해안지역의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關東지역의 생산설비를 關西 지방으로 옮기는 '서고동저(西高東低)형 재배치²¹⁾도 추진되고 있음
 - 또한, 전력 부족에 대응하여 주말근무, 재택근무, 서머타임 등 절전형 근무 시스템²²⁾을 도입하고 절전형 가전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율을 높이는 작업에 좀 더 속도를 낼 전망

< 대지진 후 일본경기 침체의 파급 경로 >



21) 中西部의 기후縣은 도쿄도의 22개 분량(103만㎡)에 달하는 유휴 산업용지 분양을 위해 지난 4월1일 東北지역의 지진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반도체용 불소수지 부품을 만드는 '니치아스'는 생산시설의 일부를 西일본으로 이전할 계획(日本經濟新聞, 2011년5월5일자. 3면)

22)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자동차업체들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목-금에 휴무하고 토-일에 근무하기로 했으며, 이동통신업체인 'NTT도코모'도 월-화에 휴무하고 주말에 일하기로 결정했으며, 통신업체인 KDDI와 소프트뱅크는 재택근무를 도입하기로 함

○ 일본의 사례 속에서 우리 경제는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기울여야 함

- 첫째, 제조업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조달하는 핵심 부품소재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수입선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 국산화와 부품소재 관련 對日무역수지 축소를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 활성화, 부품소재 관련 해외판로 개척 등이 필요함
- 일본부품의 조달 차질로 조업중단을 겪었던 르노삼성과 같은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며, 부품 조달을 다변화하고 핵심부품의 국산화도 추진
- 2001년 이후 부품·소재 산업의 對日무역적자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어 2006년부터는 전산업 무역흑자 규모를 추월

<부품소재 對日, 對中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對日무역적자	▽118	▽139	▽161	▽161	▽156	▽187	▽209	▽201	▽243
對中무역흑자	54	106	159	200	198	190	135	337	459

자료: 지식경제부

- 둘째,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국제회의, 전시회, 각종 행사, 관광 등 MICE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활용함
- 상대적으로 안전한 회의장소로서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회의와 전시회 등을 유치하고, 국내 관광과 연결함으로써 MICE산업²³⁾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에너지 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생산설비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설비로 개체하고, 나아가 에너지절감형 경제시스템으로 바뀌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기존 화석연료를 활용한 생산시스템의 경우, 에너지단위(energy basic unit)²⁴⁾의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생산시스템을 구축

23) MICE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줄임말로써, 국제회의나 전시회 등 업무와 연계된 관광 및 숙박 서비스산업. 향후 우리나라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산업이지만, 아직 시장의 크기와 성숙도 등 발전단계는 낮은 편이다.(현대경제연구원, 'MICE산업 육성을 위한 선진화 방안, VIP보고서, 2010.12.22 참고)

24) 단위 부가가치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투입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 부가가치 1단위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소요량이 많을수록 에너지 효율성은 그만큼 낮은 것을 의미하므로, 원단

- 저탄소시대를 대비하여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電力 생산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

- **넷째,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단기적 성과와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위기관리가 가능한 지속가능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지진과 같은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대처하는 능력, 핵심 부품소재 조달의 차질에 대비한 새로운 공급선의 개척 등을 준비

- **다섯째, 국민생활 및 안전과 관련하여 ‘재난대처 및 안전보장 시스템’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보강이 필요함**
 - 대형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경우의 인명피해 최소화 시스템, 전력복구 시스템, 식품과 생수 공급 시스템 등 긴급복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함
 -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당히 열악하다고 평가되는 내진설계의 실상을 점검하고 내진설계의 기준 자체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정책연구실 김동열 수석연구위원 (2072-6213, dykim@hri.co.kr)

<별첨 1> 東北지역의 생산차질로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과 업종

지역	업종			
홋카이도	통신기계 및 관련기기, 음식료품, 플라스틱	컴퓨터 및 부속장치, 가구·목제품, 요업, 화학기초, 화학최종	전자부품, 자원재생	정밀기계, 비철금속, 사무용기기
칸토(關東)	컴퓨터 및 부속장치, 자동차부품, 산업용전기기계, 정밀기계	전자부품, 인쇄, 농림수산업, 비철금속, 음식료품, 기타 전기기계, 자원재생	승용차, 가구·목제품, 일반기계	통신기계 및 관련기기, 펄프/종이, 사무용기기
추부	통신기계 및 관련기기	컴퓨터 및 부속장치	전자부품	자원재생
간키	음식료품	펄프/종이		
추코쿠	컴퓨터 및 부속장치			
시코쿠	통신기계 및 관련기기	컴퓨터 및 부속장치	전자부품	정밀기계
큐슈	통신기계 및 관련기기	전자부품	승용차	기타 자동차
오кина와	음식료품	기타 전기기계	기타 제조	

자료: 日本 경제산업성, 「지역간 산업연관표 (2005년)」(住友信託銀行 調査月報(2011년4월호) 재인용)

주: 東北지역 생산품의 투입 비율이 업종 생산액의 2% 이상인 업종

<별첨 2> 인구의 파동에 따른 일본경제의 파동 추이

(단위: 만 명)

	'40년	'50년	'60년	'70년	'85년	'95년	'05년	'15년	'25년	'40년
	인구보너스(신규學卒>정년退職)						인구오너스(신규學卒<정년退職)			
생산가능 인구(15~64)	4,295	4,966	6,000	7,157	8,251	8,716	8,442	7,681	7,096	4,930
後期고령자 (75세~)	89	106	163	221	471	717	1,164	1,645	2,167	2,373
비고		단카이 세대		단카이 주니어	부동산 버블	버블 붕괴	단카이세대의 은퇴가 시작된 '96년以後 內需不振(디플레) 시작			

자료: 총무성 '國勢調査'(藻谷浩介(2010)) 자료를 토대로 제작성

<별첨 3> 일본 주요 실물경제 지표 추이 (1)

	2009년		2010년				2011년	
	3/4	4/4	1/4	2/4	3/4	4/4	1/4	4월
경제성장률(%)	-2.0	6.3	9.4	-0.0	3.6	-2.9	-3.5	-
재화와 서비스 수출(%)	40.6	27.4	29.5	22.4	6.6	-3.3	2.8	-
재화와 서비스 수입(%)	24.6	4.0	12.0	17.3	12.2	-1.3	8.2	-
소비자 물가	-2.2	-1.7	-1.1	-0.7	-0.6	0.0	0.0	0.3
실업률	5.4	4.8	5.3	5.2	5.1	4.5	4.9	4.9
소매판매(%)	-1.3	-0.2	4.7	3.3	1.4	-2.2	-8.3	-4.8
광공업 생산지수(p)	84.6	90.4	95.2	94.3	93.7	96.2	82.7	83.5
단칸지수(p)	-44	-35	-33	-22	-10	-13	-15	-9
소비자 신뢰 지수(p)	40.7	37.9	41.0	43.6	41.4	40.2	38.3	33.6
경기선행지수(p)	93.3	96.5	99.5	100.7	100.9	101.9	104.2	104.9

자료 : 일본 내각부, Reuters.

주 : 1) 경제 성장률은 전기비 연률임

2) 소매판매, 광공업 생산, 실업률, 경기 선행지수, 경기동행지수, 소비자 신뢰 지수, 소비자 물가 수치는 3월, 6월, 9월, 12월 자료임.

3) 단칸지수 4월 자료는 2/4분기 전망치임

< 별첨 4> 일본 주요 실물경제 지표 추이 (2)

(전기대비,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간	1/4	2/4	3/4	4/4	1/4
경제성장률	-1.2	-6.3	4.0	9.4	-0.0	3.6	-2.9	-3.5
개인소비	-0.7	-1.9	1.8	1.0	-0.2	0.8	-1.0	-0.6
설비투자	-1.4	-16.7	2.1	1.6	2.6	1.0	0.0	-1.3
수출	1.6	-23.9	23.9	6.7	5.2	1.6	-0.8	0.7

자료 : 日本 내각부 (2011년 1분기 GDP 1차 속보치, 2011.5.19)

주 : 경제성장률 분기별 수치는 전기대비 年率이며, 나머지 개인소비, 설비투자, 수출은 전기대비 증감.

< 별첨 5> 전력 공급 부족에 따르는 산업별 영향

피해 순위	구분 산업	실질 GDP		취업자 수		1인당 연평균임금	
		억 엔	%	만 명	%	만 엔	%
1	서비스	-5,539	-0.5	-3.1	-0.14	-0.8	-0.3
2	도소매	-5,443	-0.9	-2.9	-0.27	-1.8	-0.5
3	전기기계	-5,164	-1.4	-0.6	-0.41	-4.4	-0.8
4	수송·통신	-3,075	-0.8	-0.9	-0.25	-2.2	-0.5
5	일반기계	-3,034	-3.0	-1.1	-0.88	-8.8	-1.7
6	전기·가스·수도	-3,024	-2.4	-0.3	-0.71	-10.4	-1.4
7	수송용기계	-2,587	-2.0	-0.7	-0.60	-6.7	-1.2
8	기타 제조업	-1,502	-1.2	-0.8	-0.36	-2.6	-0.7
9	일차금속	-913	-2.2	-0.3	-0.66	-7.2	-1.3
10	농림수산	-706	-0.9	-0.8	-0.26	-0.3	-0.5
11	건설	-654	-0.2	-0.3	-0.07	-0.5	-0.1
12	요업·토석제품	-488	-2.1	-0.2	-0.61	-5.0	-1.2
13	화학제품	-419	-0.5	-0.1	-0.15	-2.0	-0.3
14	펄프·종이	-366	-1.7	-0.1	-0.49	-4.1	-0.9
15	정밀기계	-357	-2.2	-0.1	-0.64	-6.4	-1.2
16	금융·보험	-347	-0.1	-0.1	-0.04	-0.4	-0.1
17	식료품	-347	-0.3	-0.1	-0.08	-0.5	-0.2
18	석유·석탄제품	-322	-0.8	-0.0	-0.22	-3.4	-0.4
19	금속제품	-143	-0.4	-0.1	-0.10	-0.8	-0.2
20	부동산	-119	-0.0	-0.0	-0.01	-0.0	-0.0
21	섬유	-92	-1.3	-0.1	-0.38	-2.3	-0.7
22	광업	-76	-3.4	-0.0	-1.01	-8.8	-1.9

자료 : 第一生命經濟研究所, 「電力不足が雇用·所得に及ぼす影響」, 2011年 5月 9日; 東洋經濟, 2011年 4/30-5/7, 合併号. (대구경북연구원(2011)에서 재인용)

< 참고문헌 >

- 內閣府 月間經濟動向
內閣府, 「縣民經濟計算」, 2007
總務省, 「家計調査」, 2010
總務省, 「國勢調査」
經濟産業省, 『工業統計表』, 2009
日本自動車工業協會
日本原子力産業協會
日本經濟新聞, 「新しい日本へ」, 企劃記事 シリーズ, 2011
Mizuho Corporate Bank, 「東日本大震災が日本産業に与える影響」, 2011.4.25
MUFJ銀行, 「經濟レビュー」, 2011.4.20
TDB(Teikoku Data Bank), 「TDB マクロ經濟見通し」, 2011.5.23
住友信託銀行, 調査月報, 2011년4월호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특집: 일본대지진과 자동차산업 영향」, 자동차경제, 2011년5월호
대구경북연구원, 「일본 대지진의 영향과 지역의 대응과제」, 2011년6월 발간 예정
藻谷浩介, 『デフレの正體 - 經濟は「人口の波」で動く』, 角川出版社, 2010
藤田 勉, 『震災で日本經濟はどうなるか』, 日本經濟新聞出版社, 201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9년					2010					2011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2.6	-4.9	-0.7	1.6	5.0	2.9	3.7	1.7	2.6	3.2	2.8
유로 지역	-4.1	-2.5	-0.1	0.4	0.2	1.8	0.4	1.0	0.4	0.3	1.6
일본	-6.3	-20.1	10.8	-1.9	7.3	3.9	6.0	2.1	3.3	-1.1	1.4
중국	8.7	6.2	7.9	9.1	10.7	10.3	11.9	11.1	10.6	9.8	9.6
한국	0.2	-4.3	-2.2	1.0	6.0	6.2	8.5	7.5	4.4	4.7	4.3

주: 1) 2011년 전망치(E)는 IMF 2011년 1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6월10일	6월16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83	3.89	3.30	2.97	2.93	-0.04%p
	엔/달러	92.93	88.43	81.19	80.32	80.86	0.54¥
	달러/유로	1.4413	1.2238	1.3350	1.4513	1.4181	-0.0332\$
	다우존스지수(p)	10,428	9,774	11,578	11,952	11,962	10p
	닛케이지수(p)	10,655	9,383	10,229	9,514	9,411	-103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4.41	3.86	3.38	3.65	3.61	-0.04%p
	원/달러(원)	1,164.5	1,222.2	1,134.8	1,082.6	1,089.9	7.3원
	코스피지수(p)	1,682.8	1,698.6	2,051.0	2,046.7	2,046.6	-0.1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6월10일	6월16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79.35	75.77	91.40	99.30	94.84	-4.46\$
	Dubai	78.06	73.14	88.80	112.04	108.25	-3.79\$
CRB선물지수	283.38	258.52	332.80	348.04	336.89	-11.15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